

## 서태원 목사 기념 장학금



(1905년 - 1950년)

서태원 목사는 일제강점기 배재학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신앙의 길에 들어섰다. 졸업 후 일본 아오야마대학교에 입학하여 6년간 수학한 뒤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귀국 후 서태원 목사는 고향인 충청남도로 돌아가 증조부 때부터 이어져 온 넓은 토지를 서른네 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주어 자립하도록 도왔다. 이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세워주는 실천적 신앙의 표현이었다.

이후 서태원 목사는 충청남도 지역에서 네 곳의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가 자리를 잡고 성장하면 미련 없이 후임자에게 사역을 맡기고 떠나는 결단을 반복하였다.

그가 개척한 교회 가운데 대전제일감리교회와 예산제일감리교회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예산제일감리교회에서는 항일 민족운동적 신앙을 실천하며 시대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서태원 목사는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옥고를 치르면서 신앙을 지켰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서태원 목사는 서울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전쟁 직전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설교를 마친 뒤 피신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모두가 떠나면 학교를 누가 지키느냐는 말로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그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산군에 의해 끌려가 납북되었다.

서태원 목사는 교육자로서 많은 인재를 길러냈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는 미시간 대학 출신 김형민 초대 서울 시장, 최지열 해군 준장, 김영근 컬럼비아대 교수, 동경 제국대 출신 구두회 교수 등이 있다. 특히 구두회 교수는 스승의 뜻을 기려 서울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장학기금을 세우고 10년 동안 이를 운영하다가 은퇴 후 유가족에게 인계하였다.

제자 구두회 교수에 의해 시작된 장학사업은 196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아들인 서동성 변호사, 서동영 장로와 서동명 장로가 이를 이어받아 발전시켰다. 서동성 변호사는 부친의 뜻에 따라 재산을 장학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지속적으로 장학기금을 확장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태원 목사의 삶은 신앙, 희생, 교육, 그리고 나눔으로 일관되었다. 그는 시대의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길러내며,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았다. 그의 발자취는 오늘까지도 교회와 다음 세대 속에 이어지고 있다.

